

AI 차단방역에 생석회가 일등공신



▲ 조영택 대표

- 1994 영월석회 설립
- 2000 영월석회공업사 설립
- 2001 시설 개보수
- 2006 로라밀 및 스크린 라인 신설
(제품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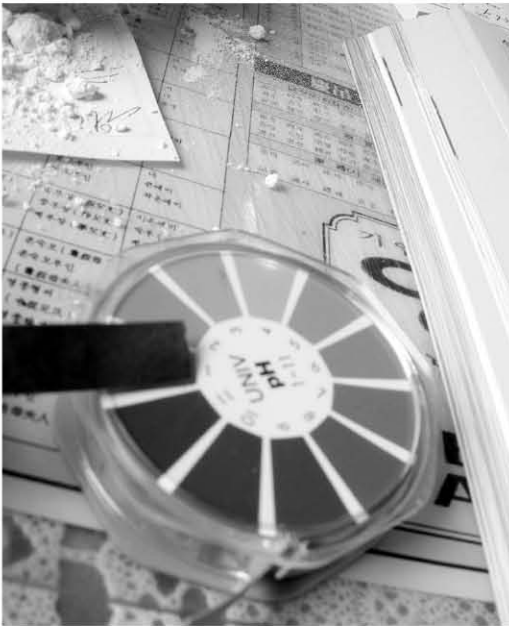
4월에 찾아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5월 12일 경남 양산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양계인들이 다소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AI 발생 농장들을 보면 대부분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농가의 방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하여 생석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고는 강원도 영월에서 생석회를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는 영월석회공업사 조영택 사장을 만나 생석회의 공정과정 및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생석회의 매력에 끌려

조영택 사장은 지난 1989년까지 인쇄업계에서 영업활동을 하던중 친인척의 소개로 고향인 영월군에 위치한 쌍용그룹의 시멘트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생석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생석회를 접했을 때 물을 부으면 열을 내면서 변화되는



▲ 농장에 공급되고 있는 생석회(20kg), 용도별(건축재료용, 소독용 등)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진다.



▲ 생석회를 소성화 시킨 소석회를 리트머스 종이로 산도를 측정한 결과 강알카리인 pH11을 보여주었다.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하찮은 돌조각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보면

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 생석회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영월석회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에 큰 진전이 없었다. 생석회를 직접 제조하고 생산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이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한 결과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1년에 6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조 사장은 생석회는 용도가 다양하고, 비싸지 않아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생석회는 건축자재, 소독용 등 용도가 다양하며 영월석회에서는 원석을 열처리 한 후 가저온 재료를 이용해 소량의 물량이더라도 고객의 주문에 맞게 Mash, 품위, 포장단위 등으로 생산, 포장하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문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용도의 생석회

생석회의 원료인 석회석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약 350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약 170년 정도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생석회의 질이 높지 않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조사장의 말이다.

생석회는 건축자재 제조시 부재료(연약지반, 토질안정화 처리제 등), 소독용(AI, 구제역 방제 등), 양식장바닥, 유황함제, 석회보르드액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생석회 제조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원석을 파열공장에서 적당하게 잘라주고 이를 950-1,150℃로 열처리하여 다양

한 크기 등 용도에 맞게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영월석회공업사에서는 열처리 이후의 가져온 원료를 산도와 크기를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만들어 내고 있다.

AI 방역에 생석회가 큰 역할

이번 AI가 발생되면서 정읍과 김제 지역에 27톤을 긴급히 공급하는 한편 나주, 영주 등에도 생석회가 AI 차단방역 용도로 공급한 적이 있어 수요가 평소보다 늘어났다는 것이 조 사장의 말이다. 지난 2003년 이후 AI가 처음 발병하면서 나주의 화인코리아에서는 정기적으로 생석회를 주문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처음에는 생석회가 양계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50℃의 열을 내면서 소성화되고 그 후에도 산도가 pH10이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살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AI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한 농가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라고 조 사장은 생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의할 사항은 생석회의 경우 물을 만나면 350℃의 열을 내면서 소성화가 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나 화상만 주의하면 된다. 조 사장은 생석회(CaO) 뿐만 아니라 소석회(Ca(OH)₂)도 생산하고 있는데 농장에서의 소독에는 모두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

지속적인 농가 공급체계구축 필요

조 사장은 양계농가에서 꾸준히 방역의식을



▲ 생산 공정을 설명하고 있는 조영택 사장

갖고 생석회를 사용할 경우 농장으로 들어오는 병원체의 대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생석회는 흰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소독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리 많은 분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자동차 바퀴가 1바퀴 이상 굴러갈 수 있는 길이로 두 겹께 도포해 주면 된다. 비가 와서 소석회로 변하더라도 완전히 굳지 않으면 소독효과를 낼 수 있다.

조 사장은 농가에서 구제역이나 AI가 창궐할 때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하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 만약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단체로 공동구매를 할 경우 현재 시중에서 20kg짜리 1포에 2,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이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조 사장은 외부로부터 1차적인 차단이 생석회가 될 것이라 자신하면서 정부에서도 AI 방역을 상시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계획적 공급과 사용을 통해 AI가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기를 바랐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